



도의회,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전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8일 의정실에서 하나예술회관 2층에 위치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노후 시설 보완 등에 활용돼 달라며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3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달 21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가 함께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물품을 기부받아 진행된 바자회 판매 수익금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지역 암관리 협의체 회의·성과평가대회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지역 암 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18일 2025년도 하반기 지역암관리 협의체 회의 및 지역암관리사업 평가대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암관리와 암생존자 통합지시 사업 성과를 공유·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암센터(소장 김명기 교수)와 전북권 암생존자통합지시센터(센터장 송은기 교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및 보건 의료인 관계자 유관기관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암 예방과 지역암관리사업, 암생존자 통합지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군 보건소와 보건 의료인의 사업 실적을 점검했다. 또한 내년도 지역암관리 주요 사업 방향과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어 열린 지역암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기관 시상에서는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고창군보건소와 남원시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뽑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상근 기자



김제공노조 등,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연탄기부

김제시는 김제시공무원노조(위원장 오정후)와 NH은행 김제시지부(지부장 김유현)가 18일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3,800장(약 342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탄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나눔 활동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탁식은 김희옥 부시장을 비롯해 오정후 김제시공무원노조 위원장 NH은행 김제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기부의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기부된 연탄 3,800장은 난방 지원이 필요한 관내 19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민관이 함께한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기부 물품이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제로타리와 협약

김제시는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이 18일 국제로타리 2670지구 김제로타리클럽(회장 이장호)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평소 무료급식,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 활동으로 실질적인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김제로타리 클럽과의 이번 협약은 김제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향후 복지정보 공유, 공동사업 기획,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복지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도-초록우산 전북, ‘산타원정대’ 행사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 선물 등 전달**

전북특별자치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가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펼쳤다.

도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행사를 열고 도내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초록우산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연말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의 사전 소원 조사를 바탕으로 준비된 선물을 직접 포장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도내 기업과 단체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동들에게 연말 선물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나눔 캠페인으로 매년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연후원 유공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후원과 나눔 실천으로 지역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산타원정대에는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



훈), 농협은행 전북본부 노조위원회(위원장 박병철), 전북신협(본부장 강연수), (유)금강산개발(대표이사 은윤기), (주)해전산업(대표이사 김형식), 전주 미소아름치과, 전북개발공사, 정성모아사회적협동조합, 농협사료 전북지사, (주)호연테크, (사)어웃사람의사회, 나누리봉사단 더메이호텔, (사)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역 내 주요 후원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대표 산타로 참여한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산타가 되어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환한 웃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오상근 기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정행정 구현 | 전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 출범

전주교도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교도소(소장 윤순봉)는 18일 교도소 내 회의실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인 전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역 신뢰를 갖춘 외부위원 8명이 재위촉 및 신규 위촉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전주교도소의 주요 교정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법률·교육·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과 교정기관 관계자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교정기관 이전 문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할 공공기관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선진지 견학 추진 △교도소 인근에 도서관 등 주민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설치 건의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 의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연말, 임실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온기 가득

전기공사협회 전북 등 장학금 전달

연말을 맞아 임실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가득 퍼지고 있다. 임실군 애향정학회(이사장 심 민)는 지난 17일 장학금 기탁식을 열고 지역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재수)와 임실군 전기협회(회장 최춘열)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들을 위해 애향정학회 장학금 5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300만원, 임실군 전기협회는 200만원을 각각 기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이어 임실산악회(회장 황정자)도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연말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또한 임실군청 옥정호철링과 정일범 팀장이 2025년 제29회 민원봉사대상 분상 수상을 기념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동충동 지역사회, ‘팔알 온기 사업’ 추진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동지를 앞두고 남원시 청년마루에서 팔알 온기 사업을 추진했다.

팔알 온기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동지 팔알 나눔 행사로 사회적 고립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정성이 담긴 식사를 제공하고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동 우리마을 돌봄단체에서 직접 팔알을 준비하고 대상 가정을 찾아 전달하며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남원=김기우 기자



김제농협, 농가주부모임과 동지팔알 행복나눔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웅)은 지난 17일 김제농협 3층 대강당에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지역 이웃을 위한 동지팔알 행복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동지를 맞아 전통 먹거리인 팔알을 나눠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김제농협에서 생산한 쌀과 회원들이 직접 만든 팔알을 비롯해 정성껏 준비한 반찬 등 총 5종의 나눔 물품을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 및 어르신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경찰, 산불진화 등 기여 민간인에 감사장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최근 산불 예방과 보이스피츠 범죄 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 진화 유공자인 동계면 내령마을 진재현 이장의 경우, 최근 동계면 풍악산 산불 발생때 산악 지리 안내로 초기 산불을 진화했고 보이스피츠 예방 유공자인 동계농협 김수연 과장은 경찰에 적극 협조해 고령 피해자의 급전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기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특별회비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과 청소년 적십자(RCY) 지도교사 및 학생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흥식 회장과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치과대학 21기 졸업생들,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21기 졸업생들이 모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기원하며 4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치과 의사 또는 교수로서 사회에 이바지해 온 졸업생들이 모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기부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17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치과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었다. 이날 기증식에는 전북대 양오봉 총장을 대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를 주도한 김영민 21기 졸업생 대표는 2005년 전북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북대 치과병원 전문의를 거쳐 군산에서 활발한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정읍농협, 성금 1000만원 · 라면 170박스 기탁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정읍시는 18일 정읍농협이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과 공유냉장고를 위한 라면 170박스(57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 중 라면 170박스는 관내 곳곳에 설치된 ‘공유냉장고’에 채워져, 가난 걱정이 있는 결식 우려 가정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 지정기탁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개그맨 김범준, 원촌초 인재장학금 기부

남원시는 12월 18일 남원시 홍보대사이자 주천면으로 귀촌한 개그맨 김범준 씨가 원촌초학생들을 위해 인재장학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촌초등학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범준 씨는 “주천면으로 귀촌해 지내면서 지역의 따뜻한 정과 배려를 많이 느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노인회 부안지회, 부안농협서 복지지원금 후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성태)는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부안농협협동조합(조합장 김원철)이 농가 소득 증대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지원금 1,300만원을 전달했다.

부안농협은 부안군지회에 노인복지 증진 기금으로 1,000만원과 서예실에 문화활동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2018년부터 매년 1,300만원씩 복지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